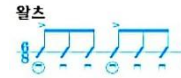


시니어 순모임(3 월)

- ❖ 찬 양--- 찬송가 370 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같이
- ❖ 대표기도 ----- 말은이
- ❖ 감사제목 나누기 ----- 다같이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 나누기)
- ❖ 기도제목 나누기 ----- 다같이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세요)
- ❖ 말씀나누기 ----- 다같이
- ❖ 합심기도 ----- 다같이
 1. 블레싱 파크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역과 다음
다음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당이 되게 하옵소서
 2. 미주디이스포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이민 교회와
한국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 ❖ 광고 ----- 말은이
- ❖ 주기도문 ----- 다같이

📍 알려드립니다.

1. 미주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3 월 16~22 일) 가운데
성령충만과 기적과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시니어 특강 : 3 월 16 일 주일 오후 12 시, 시니어 사랑방
"선교가 답이다" 강사 : 박정수 목사(로템나무 회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통 455) 370

E. E. Hewitt, 1898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 119:54)

SINGING I GO: 8.6.8.6. REF.
W. J. Kirkpatrick(1838-1921)

보통으로

1. 주 안에 있 는 나 에 게 판 근 심 있 으 라
2. 그 두 려 움 이 변 하 여 내 기 도 되 었 고
3. 내 주 는 자 비 하 셔 서 늘 함 께 계 시 고
4. 내 주 와 맺 은 언 약 은 영 불 변 하 시 니

십 자 가 밀 에 나 아 가 내 짐 을 풀 었 네
전 날 의 한 숨 변 하 여 내 노 래 되 었 네
내 궁 핏 함 을 아 시 고 늘 채 워 주 시 네
그 나 라 가 기 까 지 는 늘 보 호 하 시 네

주 님 을 찬 송 하 면 서 할 렐 루 야 할 렐 루 야

내 앞 길 멀 고 험 해도 나 주 님 만 따 라 가 리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4:1-6 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변화, 세상과 다른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됩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속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믿는 신자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생활에 대해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은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번째 ,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1 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 바울은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삶에 대해 지금부터 에베소서 6 장 끝까지 소개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라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요구 받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요청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삶에 대한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는 완벽한 수준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때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우리를 돕고 지키는 성령을 보내시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두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

바울은 신자의 새로운 삶을 말하면서 예수 닮은 성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 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살아갑니다.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에 계신 예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닮은 성품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바울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면서 첫째로 강조하는 덕목이 겸손입니다. 칼빈은 진정한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한 윤리가 아닌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두번째 덕목은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그 안에 있는 강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유하게 변화된 성품입니다. 세번째 덕목은 오래참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할 것을 믿을 때 인내가 가능합니다. 그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네번째 덕목은 용납입니다. 용서란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용납의 성품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셋번째, 성령님의 하나됨을 지키는 삶을 살라

3 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 절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라, 연합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미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그 하나됨을 지켜 나가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각각 다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할 일은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힘써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시너지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무게를 끄는 힘은 2 톤이라 합니다. 두마리 말을 동시에 끌게 하면 산술적으로 4 톤이라야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두 말이 함께 23 톤을 끌었다고 합니다. 10 배나 더 힘이 난다는 것, 솔직히 믿기 어려운 연구 결과 정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진정한 하나가 가능할까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서로가 지체를 이루는 한 몸입니다.

하나됨, 이것이 오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탁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Together in Christ”입니다.

우리도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대하십니다.